

# ‘오프로더 원조’ 디펜더, 007영화·영 왕실 인연 등 한 눈에

## 김재웅의 봄봄봄

### 랜드로버 디펜더 뮤지엄

출시 75주년 기념 한정판 선보여  
초기 모델 연상되는 그린색 눈길  
75년간 전세계 누빈 활약상 소개

랜드로버는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그 중에서도 디펜더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시리즈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이후 오프로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디펜더가 잠시 단종된 사이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앞다퉈 모방하는 것은 물론, 디펜더를 계승한다는 브랜드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영국 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디펜더가 그만큼 보편적인 디자인이 됐음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온 디펜더, 랜드로버는 75주년을 기념해 리미티드에 디펜더를 출시했다. 그리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75대 한정판으로 국내에 출시하며 디펜더의 복귀를 다시 한 번 기념



랜드로버코리아 로빈 콜건 대표가 디펜더 75주년 기념 리미티드에디션(왼쪽)과 클래식 디펜더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했다. 17일부터 성수 디뮤지엄에서 디펜더 뮤지엄을 열고 리미티드에디션과 함께 지난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디펜더 리미티드에디션은 최상위 트림 110 D300 HSE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디펜더 역사를 담은 외관은 물론 강력한 성능과 편의 기능도 자랑한다. LG

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며 편의 기능을 크게 제고하며 완벽을 기한 모델로도 잘 알려져있다. 초기 모델을 연상케 하는 그래스미어 그린 색상에 헤드라이트, 그리고 곳곳에 75주년 한정판을 의미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배합했다.

랜드로버는 무엇보다 뮤지엄을 통해

디펜더 ‘헤리티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영국 왕실과 007 영화,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던 당시 모습을 담으며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오프로더를 대표하는 모델로 활약한 이야기를 담았다. 디펜더를 모방한 SUV가 수없이 많아졌지만, ‘오리지널’은 디펜더임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정판 모델과 함께 전시된 클래식 디펜더는 이목을 사로잡았다. 7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어지는 디자인 철학, 그러면서도 최첨단 기능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비교해보면 디펜더의 특별함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디펜더가 깎아내리는 듯한 구조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서있는 모습은 여전히 감탄을 내게 한다. 험지에서는 차체를 최대 145mm까지 차체를 높일 수 있으며, 도강 높이 역시 900mm에 달한다.

75년간 디펜더 역사는 실차 대신 다 이캐스트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색을 입었지만 한결같은 여러 세대 디펜더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변치않는 사랑을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짐작케 한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디펜더를 닮은 오프로더가 수도 없이 많이 출시됐지만 디펜더와 같이 75년 역사를 가진 모델은 없다”며 “디펜더 75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한화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TCFD’ 지지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전담 협의체)

###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사업 전 분야 기후변화 대응 동참

한화시스템이 지난 10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전담 협의체(TCFD) 지지를 선언했다고 17일 밝혔다.

TCFD는 2015년 국제기구나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설립된 협의체다.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조직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세부 활동과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TCFD 지지 선언으로 방산·ICT 부문과 UAM·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신사업 부문 등 전 사업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주요 협력업체 20개 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ESG 경영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9월에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진단 및 평가할 수 있고, 공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ESG 경영관리시스템 ‘ESGON’을 공식 론칭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공영흡소핑 협력사에 판매대금 230억 선지급

### 설 앞두고 상생경영 강화

공영흡소핑이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3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했다.

공영흡소핑은 예년보다 빠른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에서 사흘 앞당겨 17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영흡소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최대 8일 먼저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공영흡소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로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이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명절 전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공영흡소핑은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격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진, 친환경 경영 강화... 전기차 충전사업 등 확대

###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도 추진

한진이 친환경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한 전기차 충전사업 및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통해서다.

17일 한진에 따르면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물류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주도에서 전기차 택배 차량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이후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택배 터미널 내 전기차 충전사업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서울 구로 터미널, 강서 터미널, 광주 터미널, 제주 터미널 총 4개 택배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6기 설치를 끝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진이 전기차 충전기 및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물류활동 강화한다. 한진의 택배 전기차.

한진은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개 택배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엔 전국의 택배·물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늘려 택배 차량 외에 전기 화물차 대상으로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관련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과 함께 태양광 발전

설비 인프라도 구축해 전력을 스스로 공급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에너지공단의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선정돼 강원도 원주 택배 터미널에 태양광 발전소를 2월에 준공하는 등 태양광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 공유 편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 운영

벤처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펀드 운용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선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부터 벤처펀드 운용사(GP)와 출자자(LP)가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지난해 4월에 착수해 같은해 12월에 구축이 마무리됐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

처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 실적을 통합해 확인이 가능하다. 운용사는 운용사 내부 전산망(ERP)과 연계해 펀드의 주요 정보 등록, 투자 변동사항 관리와 투자진행별 주요 보고를 자동 처리할 수 있다.

펀드의 재산을 위탁받은 기관과 펀드 운용사 간 재산 운용지시, 운용 결과보고를 전산 처리하고 출자자는 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함에 따라 사용자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와 디바이스(PC, 태블릿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